“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9호 HYUNBULNEWS.COM 2025년 12월 17일(음력 10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조계종은 12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있던 마애여래삼존불을 덕숭총림 수덕사로 이운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지난 2004년 2월 17일 종단 안정과 화합을 발원한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원력으로 조성된 마애여래삼존불은 국보 서산 마애여래삼존상을 재현한 것으로 20여 년간 기념관을 찾는 사부대중의 예경 대상이었다. 사진은 이운 전 마애여래삼존불에 예경을 올리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사진 제공=조계종

“세계유산 가치 훼손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조계종 12월 8일 입장문 발표
“인류 보호 세계 유산” 강조
12월 5일, 환경위 현장 점검
환경 · 경관 전면 재검토 필요
“통도사와 함께 끝까지 대응”

임은호 기자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12월 5~6일 통도사, 표충사에서 현장점검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신불산 케이블카 개발의 부당성을 확인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진각 스님, 이하 환경위)가 울산 울주군 신불산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건설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환경위은 12월 8일 ‘신불산을 훼손하는 케이블카 건설을 단호히 반대한다’ 제하의 입장문에서 “신불산과 영축산, 그리고 통도사는 한국 불교의 심장부이자 인류가 보호해야 할 세계적 자연·문화유산”이라며 “케이블카 사업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갉아먹는 횡령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켜야 마땅한 세계유산권역을 온전히 보전하는 일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이 계획이 불가역적으로 철회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불산 일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건립 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 온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울주군은 2018년 자체 검토 과정에서 기존 노선의 부적합성을 인정했으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이후 노선을 변경해 사업을 다시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 재추진 움직임이 일자 환경위는 통도사와 함께 12월 5일 건설예정지를 방문,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환경위원들을 △변경 노선의 설치 위치 △식생 훼손 가능 지역 △탑승·하부 정거장 조성 예정지 등을 살펴보며 케이블카 설치가 신불산·영축산·통도사에 미칠 영향을 확인했다.

특히 자연경관의 핵심 공간인 공룡능선 위로 철탑과 와이어로프가 설치될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핵심 근거인 ‘산사와 자연의 조화’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와 함께 고산 생태계 훼손 문제도 지적됐다. 상부정거장 조성을 위한 능선부 절취와 부지 조성은 산림 훼손을 수반하며, 이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파괴와 이동 통로 단절로 이어져 생태축 파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관광 추세 변화도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세계 대부분의 산악 보호구역이 인공시설 기반 관광을 줄이고 생태보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막대한 유지비 대비 효과가 낮은 케이블카 중심 개발은 미래 지향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영축산 통도사 일대를 ‘불교 생태구역’으로 지정해 보전 중심의 장기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은 향후 종단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 뜻을 모으고, 행정절차 대응과 보호지역 제도 개선 활동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위는 △관계 행정기관 대응 △환경영향평가 검증 △법률·제도 개선 활동 △시민사회 및 종교계 연대 구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케이블카 건설 중단 및 철회를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기념관 마애불 이운…“전통+현대 공간 재탄생”

12월 10일, 이운 의식 거행
2004년부터 20년간 예경
‘LED 미디어 파사드’ 설치
12월 중 수덕사 이운 완료

2004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조성돼 예경의 상징으로 모셔졌던 마애여래삼존불이 수덕사로 이운된다. 해당 위치에는 대형 ‘LED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10일 기념관 입구 앞마당에서 마애여래삼존불 이운 의식을 거행했다. 의식은 직할교구 사무처장 진허 스님과 승가교육위원 지성 스님이 법주를 맡아 삼귀의·반야심경 봉독, 이운 취지 고(告), 석가모니불 정근, 축원, 사홍서원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소임자 스님들과 종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께 마지막 예경을 올렸다.

마애여래삼존불은 국보인 서산 마애여래삼존상을 재현한 것으로, 2004년 2월 17일 종단 안정과 화합을 발원한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원력으로 조성됐다. 이후 20여 년간 기념관을 찾는 사부대중의 예경 대상이자 자비의 상징으로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올해 6월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전면 리모델링이 추진되면서,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재정비됨에 따라 이운이 결정됐다. 마애여래삼존불이 모셔졌던 공간에는 건물 외벽을 스크린처럼 활용하는 ‘LED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행사 성격에 따라 전국 사찰의 불·보살 이미지와 다양한 불교문화 콘텐츠를 영상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법·포교의 새로운 소통 창구를 열고, 다채로운 불교의 진면목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알린다는 구상이다.

이날 마애여래삼존불에 삼배를 올린 진우 스님은 “청사 화재 복구를 계기로 마애여래삼존불을 다시 본사인 수덕사로 이운하게 됐다”며 “20여 년간 예경의 상징으로 함께해 온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기념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에 발맞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중에 있다. 불교의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변화가 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애여래삼존불 이운에 대한 사부대중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획국장 철인 스님은 ‘이운 취지의 고’에서 “법장 스님의 원력으로 모셔진 마애여래삼존불은 조계종을 대표하는 이 공간에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중생을 평안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자비와 지혜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재 복구 과정에서 기념관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장엄될 것”이라며 “이 자리를 자애로운 미소와 위없는 당당함으로 채워준 마애불을 깊은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담아 수덕사로 이운함을 불법승 삼보 전에 고한다”고 전했다.

이운 의식 이후 참석자들은 마애여래삼존불을 차례로 참배했다. 조계종은 이날 의식을 시작으로 12월 중 수덕사와 협의를 거쳐 마애여래삼존불 이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